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18.01.27.~2018.04.26.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펀드애니저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펀드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이익은 얼마나 났는지 같이 살펴 볼까요.

우리 펀드가 갖고 있던 가치주들의 주가는 올랐지만 펀드가 많이 들고 있지 않던 전기전자 업종과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하면서 낮은 수익률을 보였어요. 2월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증시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같이 글로벌 이슈 때문에 시장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대외적으로 불안한 모습으로 인해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 3개월간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러한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요. 글로벌 무역분쟁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와 기업 실적은 주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다만 전체적인 시장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우리펀드의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서 펀드에 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우리 펀드는 선진국 자본투자와 연결된 기계 등의 업종과 2차전지 관련업종, 중국소비 관련 업종 등을 많이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2018년 남은 기간도 펀드에 들어갈 종목들을 더욱 까다롭게 선별하고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위해 노력하는 펀드가 될거예요.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18. 04. 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10.66%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18. 01. 27. ~ 2018. 04. 26.) -4.75%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3.40%인 것에 비하면 1.35%p만큼 낮습니다.

최근 5년 수익률

+52.16%

비교지수 : +25.83%
비교지수대비 : +26.33%p

최근 3년 수익률

+29.74%

비교지수 : +13.80%
비교지수대비 : +15.94%p

최근 1년 수익률

+18.28%

비교지수 : +11.08%
비교지수대비 : +7.20%p

28,651 백만원

순자산 총액

-2.95% ↑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2.95%p 줄었어요.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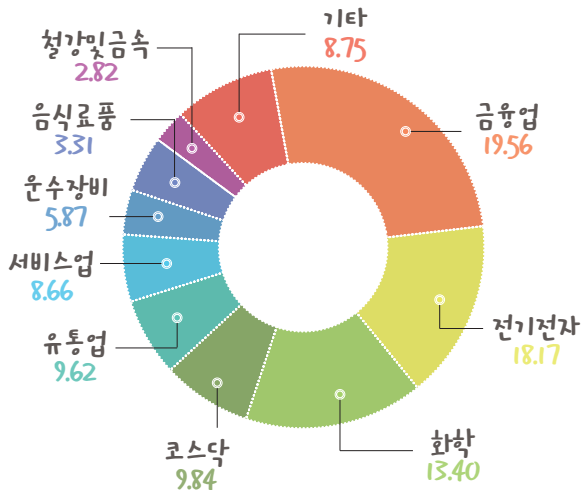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2018. 04.26., 단위: %)

1위	삼성전자	13.02	6위	SK이노베이션	1.97
2위	LS	3.45	7위	POSCO	1.94
3위	한국금융지주	2.09	8위	신세계	1.87
4위	KCC	2.01	9위	삼성물산	1.82
5위	신세계인터내셔널	1.97	10위		


2018년 4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금융업종을 이전과 변함없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S, 한국금융지주와 같은 종목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어요. 지난 번과 달라진 점이라면 지난 번에 상위10개 목록에 있던 LG관련 계열사들은 상위 10개에서 밀려났네요.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나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삼성그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지주회사이며 건설업과 국제무역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SHINSEGAE INTERNATIONAL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그룹 내 패션 비즈니스 전문기업으로 자체 브랜드의류를 제조하거나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수출입,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SK그룹의 석유화학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유개발, 정유, 윤활유, 화학 사업에서부터 미래에너지 사업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에너지, 화학 기업입니다.

투자자산매매내역을 알아보나요?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기준일 : 2018. 04. 26.

(단위 : 백만원, %)

매수	
수량	금액
158,342	6,089

매도	
수량	금액
186,325	5,355

매매회전율	
헤당기간	연환산
20.53	83.26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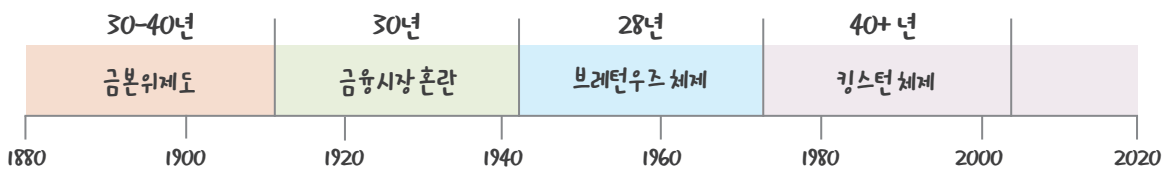
2017.07.27 ~ 2017.10.26
15.31%

2017.10.27 ~ 2018.01.26
14.69%

2018.01.27 ~ 2018.04.26
20.53%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화폐 역사 이야기

수 천년 역사 속에서 화폐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쓰이고 있는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5천년 전 이집트인들에게 돈은 금이었습니다. 물물교환을 하던 사람들이 코코넛 10개당 금 1조각과 같은 방식으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돈은 사람들끼리 서로 교환 가능해야 하고, 갖고 다니기 편해야 하며, 잔돈이 쪼개지듯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금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지요. 게다가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 무한대로 만들어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으로 충분하였죠. 그렇다면 금을 돈으로 쓰다가 지금의 화폐제도로 넘어오게 된 과정을 알아볼까요?



금을 기준으로 하는 시스템인 금본위제도(1800년-1914년)가 전세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화폐는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서 역할을 했습니다. 보관창고에 물건을 맡기면 보관증을 주듯이 10\$은 10\$ 값어치의 금이 은행금고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요한 가치는 보관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있지요. 이처럼 종이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하는건 금이었습니다.

금본위제도는 1차세계대전 전까지는 유지되었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전쟁으로 인해 돈을 쓸 곳이 늘어나는데 금은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돈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어. 그러자 각 나라가 종이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게 되었습니다. 종이 화폐를 계속 찍어 내다보니 금과 종이화폐가 비율이 더 이상 이전처럼 동일하지 않았겠죠. 금본위제도는 무너지고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화제도가 필요했어. 혼란의 시기인 12차 대전 중에 유럽은 미국에 금을 지불하고, 미국은 곡물 등을 팔았답니다. 그 결과로 2차 세계 대전 말에 전세계 중앙 은행에서 보유하는 금의 대부분을 미국이 갖고 있었고 유럽에는 금이 거의 없었어. 미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 믿을 수 있는 미국이 발행한 달러를 국제통화로 인정하게 되는 제도가 탄생합니다. 달러만 금에 고정하고, 다른 화폐들은 전부 미국 달러에 고정해서 교환비율을 유지 했지요. 모든 화폐를 미국달러로 보증하는 브레턴우즈체제 (1944년-1971년)가 생긴 것이지요.

그 이후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하여 전세계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동을 벌여서 1959년에서 1971년 사이에 미국은 절반에 가까운 금을 잃어버렸어. 전세계 나라들이 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미국은 실제 갖고 있는 금에 비해 더 많은 화폐를 이미 찍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갚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리하여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또 화폐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킹스턴체제(1976년-현재)에서는 각 나라가 스스로 자유롭게 통화를 찍어내고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금과 같이 생산량이 한정된 자산, 미국달러가 기준이 되어 돈의 가치를 보증했다면 이제는 각 나라가 자국의 돈의 가치를 보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유롭게 통화를 찍어낼 수 있게 된 이후로 40년 정도 현재의 화폐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금본위제도 실시 이후로 역사는 30-40년마다 화폐제도가 바뀌어 왔었어. 그렇다면 40년 이 흐른 지금 전세계의 경제를 위해 새로운 화폐제도가 필요한 날이 멀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화폐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까요? 주니어 경제박사 여러분들도 과거의 화폐제도 변화과정을 통하여 미래에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주식)의 3개월 수익률은 -4.75%로 비교지수 -3.40% 대비 1.35%pt 하회하였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운용경과>

펀드가 시장 대비 높은 비중으로 편입한 유통업과 꾸준히 비중을 늘린 가치주의 주가가 상승했으나 펀드가 시장 대비 낮은 비중으로 편입한 전기전자업종과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하며 비교지수 대비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은 1월까지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 글로벌 경기회복과 기업이익 개선 등 긍정적 요인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2월 들어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미국 증시의 급락을 시작으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급락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슈 등 대외변수에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변동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의지 부각 등 정책적 호재가 지속되며 헬스케어, 미디어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성장성이 부각되며 헬스케어 업종이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으며 견조한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전자, 건설 등 업종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규제에 의한 이익 증가 기대감이 낮은 전기가스, 통신 등 업종과 대외변수로 우려로 경기민감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펀드는 KOSPI의 상승에도 주가 소외로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대형 우량주와 향후 2~3년 사이에 기업가치 상승이 진행될 업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장가치가 있는 중소형주의 편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

향후 주식시장은 제한적인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의 유동성 환경은 과거 대비 악화되었으나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을 훼손할 정도는 아닙니다. 글로벌 무역분쟁 이슈가 정치적 언급으로 악재로 반영되고 있으나 이후 협상의 진행과정도 지켜봐야 하며 글로벌 경기와 기업 실적은 주식에 우호적이란 점에서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제한적인 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는 미국, 유럽의 소비 및 기업투자, 중국의 지속적인 산업 구조조정 등 G3의 견고한 경제성장으로 신흥국의 경기도 회복되는 모습으로 경기회복국면의 지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지속되는 수출 호조와 더불어 기업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스피의 예상 이익의 하향조정도 마무리되고 있고 여전히 코스피는 선진국/신흥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지표, 기업이익의 증가율 둔화 및 금리인상에 따라 보수적인 가치평가가 진행 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시장상승, 업종별 순환매보다는 기업 본질의 경쟁력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며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더욱 옥석가리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평가된 기업, 구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펀드의 보유종목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하여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보유 종목을 압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높은 비중을 유지한 경기민감업과 경기소비재 업종 중에서도 세분화 하여 선진국의 자본재 투자와 연관된 기계, 소재 등 업종과 환율,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의약품, 2차 전지 관련 업종과 중국소비 관련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18년 남은 기간에도 실적 개선세에 따라 차별화 될 종목,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 발굴 및 저가 편입에 집중하여 펀드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